

# 『救急簡易方』에 대한 小考

<sup>1</sup>김단희, <sup>1</sup>김남일, <sup>2</sup>안상우

<sup>1</sup>경희대학교 의학교실

<sup>2</sup>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 문헌연구센터

## A Review on 『GuGeupGanIBang(救急簡易方)』

<sup>1</sup>Dan Hee KIM, <sup>1</sup>Namil Kim, <sup>2</sup>Sang-woo Ahn

<sup>1</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2</sup>TKM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GuGeupGanIBang(救急簡易方)』 is a Korean annotation emergency treatment book made by scholars that were learned in medicine such as Naeuiwon(內醫院) head Yoo n Ho(尹壕)·Seo Ha gun(西河君) Im Won jun(任元濬)·GongJoChamPan(工曹參判) Park An sung(朴安性)·Hanseongbu Jwayun(漢城府左尹) Gwon Geon(權健)· SungRokDaeBuHaengByeongJoPanSeo(崇祿大夫行兵曹判書) YangCheonGun(陽川君) Heo Jong(許琮) following instructions of King Sungjong.

This book was made by supplementing 『EiBangRyuChwi(醫方類聚)』, 『HyangYakJeSengBang(鄉藥濟生方)』 and 『GuGeupBang(救急方)』. When Yoon Ho presented it the king in May 1489(the 20th year of Sungjong), the king made the governors of each province publish it in large numbers, allowing common people to have this book and find the treatment immediately and save lives.

2. 『GuGeupGanIBang(救急簡易方)』 consists of 8 volumes, 127 chapters. Contents on stroke is the largest section. Separate chapters for gynecology and pediatrics let children that are easily ill and women that cannot get treatment freely be taken care of. It is an first aid medical book covering all ages, fulfilling its original purpose.

Key words : GuGeupGanIBang, GuGeup, EiBangRyuChwi, Yoon Ho, Im Won jun, Heo Jong

### I. 서론

구한말 서양의학이 조선에 들어온 후 한의학은 도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한의학은 이법방약이 분명하고 오랜 세월 축적된 이론과 치료경험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담당 하였으나, 서양의학이 들어온 후부터 한의학적인 치료를 찾지 않는 질환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응급상황이 생길 때 일반국민들의 선택은 양방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에 논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과거에는 응급상황이 없었을까, 응급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치료했을까 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논자가 우리의학의 응급상황에 대한 치료를 담은 구급의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는 고려중엽 강화도의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鄉藥救急方』<sup>1)</sup>으로, 『鄉藥救急方』은 구급의서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의서이다. 그 뒤로 조선전기 세종 때 간행된 『救急方』·세조 때 간행된 『救急方』<sup>2)</sup>·성종 때 간행된 『救急簡易方』·연산군 때 『救急易解方』·중종 때 『村家救急方』·조선중기 명종 때 『救急良方』·선조 때 『諺解救急方』<sup>3)</sup>·일제시대 『家庭救急方』·

1) 신영일, 「『鄉藥救急方』에 대한 研究」, pp.182-183.

『鄉藥救急方』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고려 중엽으로부터 향약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되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東醫寶鑑』·『東醫壽世保元』과 같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의서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모태가 되었고, 『備預百要方』을 중요 의거서로 삼고 다른 방식을 참고하고 침삭했다.

2) 정순덕, 「『救急方』의 의사학적 연구」, p.57.

조선 초 민생안정과 왕권의 확립, 세조의 의학에 대한 재대한 관심과 의가에서 상비할 수 있는 책의 필요성 등으로 세조의 명을 받들어 중앙에서 편찬하여 지방에서 간행됨. 편찬은 1458년에서 1459년 사이에 임원준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3) 정순덕, 「허준의 『諺解救急方』에 대한 연구」, p.6.

접수▶2010년 8월 29일 수정▶2010년 9월 12일 채택▶2010년 9월 18일  
교신저자▶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Tel 042-868-9442 E-mail answer@kiomre.kr

작자와 연대 미상의 『救急方抄』·『救急易方』·『博施良方』 등 구급의서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을 담고서 계속 발간되고 있었다. 이로써 구급의학이 우리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 구급의학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학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구급의서가 가장 많이 간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전기<sup>4)</sup>이다. 조선 전기는 종합의서의 간행을 전후로 구급·태산(胎産) 등의 응급의학과 온역(溫疫)·창진(瘡疹)등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전문서 등 일반인의 실용에 우선되는 응급의학 및 방역전문서가 발췌·출판되었다.<sup>5)</sup> 조선은 개국 후 국가가 모든 정치·사회·경제·문화정책을 주도하고 시행해 나가면서 의학의 분야에서도 국가에서 의서편찬을 주도하게 된다.<sup>6)</sup> 이렇게 간행된 것이 조선전기의학을 대표하는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이다. 『鄉藥集成方』의 간행으로 우리 약재의 독립<sup>7)</sup>이 이루어지고, 『醫方類聚』의 간행으로 의학기술의 독립<sup>8)</sup>이 이루어짐으로 한국한의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醫方類聚』는 현존 최대<sup>9)</sup>의 한의학방서이지만, 편찬 당시에도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3년 여의 판각 작업 후에 간행되었다.<sup>10)</sup>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내용으로 소량만 인출되었는데 그럼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까지 의료혜택을 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또한 구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인명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구급방에 대한 의서를 간행토록 지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급방서중 하나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救急簡易方』이다.

그동안 구급의서에 대한 연구는 신영일의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정순덕의 세조대 「『救急方』의 의사학적 연구」와 허준의 『診解救急方』에 대한 연구, 손병태의 「『村家救急方』의 향약명 연구」, 이은규의 「『鄉藥救急方』의 국어학적 연구」 「『鄉藥救急方』 차자 표기 용자례」 「『村家救急方』 이본의 차자표기 비교연구」, 박수진 김순희의 「『村家救急方』의 인용문헌 연구」, 원순옥의 「『救急方』 언해의 어휘 연구」, 김남경의 구급방류의 국어학적·서지학적 연구가 있고, 『救急簡易方』에 대한 연구는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救急簡易方』 언해」, 홍문각에서 나온 「『救急簡易方』 三·六」 「『救急簡易方』 卷之七」과 최미현의 「『救急簡易方』에 반영된 한자음의 변화 양상」이라는 어문학적인 연구가 하나 있다.

『救急簡易方』은 한글 창제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

행되어 『救急方』의 언해와 함께 언해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비교적 완비된 구급의서로서 구급의학적 맥락이나 의사학적 맥락에서 『救急簡易方』을 조명해 보는 것은 한국 한의학 중 구급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본 논고에서는 서문, 목차, 편찬인물들 중심으로 『救急簡易方』을 소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救急簡易方』의 편찬의도

『救急簡易方』은 성종의 명을 받은 내의원(內醫院) 제조(提調) 윤호(尹壕)·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공조참판(工曹參判) 박안성(朴安性)·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권건(權健)·송록대부행병조판서(崇祿大夫行兵曹判書) 양천군(陽川君) 허중(許琮) 등이 만든 언해본 구급의서이다.

1489년 성종 20년 5월에 윤호가 왕에게 진상하자 각도의 관찰사에게 다량으로 간행토록 함으로, 조선 초 일반 서민들까지 집집마다 갖추어 부녀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책을 펴서 처방을 찾아보면 치료 방법이 한 눈에 들

기존의 『救急方』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1601년 선조가 왕명을 내려 허준이 저술하기 시작하여, 1607년 내의원에서 간행한 구급의서 『診解救急方』 이후로는 관에서 직접 구급의서를 편찬하는 일은 없었다.

- 4) 김홍균, 「조선 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p.48.  
조선시대 분류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도 있겠으나 본 논고에서는 조선시대 분류를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로 분류하고, 김홍균의 논문에서 조선 중기 의학의 도입부를 명종 때로 보는 견해를 수용하여 명종시대 전을 조선전기로 보고자 한다.
- 5)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 정보 웹서비스, 『醫方類聚』, <http://jjsik.kiom.re.kr/DB>.
- 6) 맹용재 외 15인, 『韓醫學通史』, p.167.
- 7) 독립이란 말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향약)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었지만, 『鄉藥集成方』의 간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우리 약재의 개발 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기에, 한국 한의학의 강조하기 위해 독립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 8) 『韓醫學通史』 pp.192-193을 근거로, 중국의 의료기술을 우리나라화 하고 한국과 중국의 모든 의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의학 기술의 독립을 이루고자 한 책이 『醫方類聚』라고 보았기에 독립이란 표현을 사용 했다.
- 9) 맹용재 외 15인, 『韓醫學通史』, p.205.
- 10)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p.60.

어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救急簡易方』의 편찬 의도는 허종이 쓴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만약 치우친 지역이나 지방 고을·궁항벽촌에서 병이 일어 남에 소홀히 한 바로 창황 중에 조치시기를 놓쳐 救止함을 알지 못하고,(병을 구하고 그치게 하는 법을 알지 못함) 생명을 잃는데 이르는 자도 그 기미를 알지 못하니...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다.... 한 가지 라도 괴로워하는 바가 있을 때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널리 물을 필요가 없이 부녀나 어린이 이라도 책을 열고方を 검토하면 치료의 術이 마음과 눈에 확연하여 보통의 손쉬운 물건(약재)으로도 죽음이 드리워진 命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sup>11)</sup>

서문을 통해 『救急簡易方』의 편찬 의도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궁항벽촌의 창졸간에 생긴 병이라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함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찬했다.

둘째, 병이 있을 때 누구든지(부녀나 어린이이이라도) 책을 열고 方을 검토하면 보통의 손쉬운 약재로도 죽음이 드리워진 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찬했다.

## 2. 『救急簡易方』의 특징

본 논고에서는 『救急簡易方』의 특징을 허종이 쓴 서문에서만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성신이 서로 이어받아, 이 백성을 보호하고 양성함에 쓰이지 않은 바가 없으니 그 지극함은 의술에 뜻을 두어 모으고 정한 바가 많았다.<sup>12)</sup> 『醫方類聚』가 이미 醫家들이 크게 이론 바를 모았고, 번거로운 것을 깎고 요점을 들은 책으로 먼저 『鄉藥濟生方』<sup>13)</sup>과 『救急方』이 있지만, 혹 取舍에 정미롭지 못하고 詳略에 마땅함을 잃어 모두 오늘날에는 딱 맞지 않다...<sup>14)</sup>” 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을 통해 『救急簡易方』이 이전에 있던 의서인 『醫方類聚』와 구급의서인 『鄉藥濟生方』과 『救急方』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의 특징에 대해서 밝히기를, “뽑는 것은 넓게 하고 취하는 것은 간략하게 하여 백성의 생활과 병을 치료하는 쓰임이 편리하게 하고자,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신(臣) 윤호(尹壕)·서하군(西河君) 신(臣) 임원준(任元濬)·공

조참판(工曹參判) 신(臣) 박안성(朴安性)·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신(臣) 권건(權健) 및 신(臣) 허종(許琮)에게 명하여, 관료들을 거느리고 고방을 찾아 모으게 하고, 병은 중요한 것을 취하였으되 급한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약은 적은 것을 모았으되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자 힘썼다. 자르고 정한 바가 실제로 신비스런 규범을 품고 있고, 택할 때는 반드시 정미롭게 하여 간략하나 생략되거나 뒤집히지 않았고, 방언으로 기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깨우치게 하였다. 책을 완성하니 무릇 8권 127문으로 『救急簡易方』이라 이름하고 신으로 하여금 서문을 쓰게 했다... 관료에게 명하여 다량으로 印出하여 모든 道에 나누어 주고, 목판에 새겨 널리 배포하여 집집마다 千金의 秘訣로 두어 사람마다 완전한 효과가 있게 하였다...”<sup>15)</sup>라고 하였다.

서문을 통해 『救急簡易方』의 특징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전에 있던 의서인 『醫方類聚』와, 구급의서인 『鄉藥濟生方』과 『救急方』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11)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諺解·東洋學叢書 第九輯』, pp.15-16.

...如偏州下邑, 窮鄉僻村, 病起所忽, 蒼黃失措, 莫知救止, 以至於喪生者不知其幾... 此此書之, 所以作也... 一有所苦, 不必旁走廣詢, 雖婦女兒童, 開卷檢方, 治療之術, 了然於心目, 而尋常容易之物, 可以續垂死之命...

12)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我國家와 聖神에 대한 내용이다.

我國家란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다면 쓸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문을 썼던 허종과 그 당시 사람들의 우리 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聖神에서 성(聖)은 신농(神農)과 황제(黃帝)이며 신(神)은 조상(祖上)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은 특별히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명의(名醫)들이 이어 나와서 조술(祖述)을 두루 살피, 이론을 세우고 방서를 지음으로써 각각 일가의 학설을 이루었음(名醫繼出, 咸相祖述, 立論著方, 各成一家之言)'을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의학의 원류(源流)를 계승하여 지속적인 발달이 이어져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13) 보물 1235호로 지정, 향약제생집성방 30권 중 1/4이 향약집성방에 들어가 있다.

한독의약박물관에 4권,5권이 있고, 서울대 규장각에 6권이 있다.

14)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諺解·東洋學叢書 第九輯』, pp.12-13.

...我國家, 聖神相繼, 保養斯民, 無所不用, 其極留意醫術, 多所裁定. 『醫方類聚』, 既集醫家之大成, 其刪煩學要者則, 先有曰『鄉藥濟生方』, 曰『救急方』, 而或取舍未精, 詳略失當, 皆不適於中...

15)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諺解·東洋學叢書 第九輯』, pp.13-15.

...欲廣選約, 取以便民生·醫病之用, 乃命領敦寧府事<sup>15)</sup>尹壕·西河君<sup>15)</sup>任元濬·工曹參判<sup>15)</sup>朴安性·漢城府左尹<sup>15)</sup>權健·暨<sup>15)</sup>琮, 率其僚屬, 搜括古方. 病取其要, 而以急爲先, 藥收其寡, 而以易爲務. 其所裁定, 實稟神規, 擇之必精, 簡而不略, 又譌以方言, 使人易曉. 書成凡爲卷八, 爲門一百二十七, 命曰『救急簡易方』, 仍令<sup>15)</sup>序之... 既命有司, 多所印出, 又頒諸諸道, 鏤板廣布, 使家家貯千金之訣, 人人有十全之功...

둘째, 넓은 곳에서 뽑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취하였다. 즉 고방에서 찾아 모았으나 택함에 정미롭게 하고, 간략해도 생략되거나 뒤집히지 않게 했다.

셋째, 백성의 생활과 병을 치료하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했다.

넷째, 병은 중요한 것을 취하였으되 급한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약은 적은 것을 모으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자 했다.

다섯째, 방언으로 기록하여 백성들이 쉽게 깨우치게 했다.

여섯째, 다량으로 인쇄하고 배포하여 집집마다 이 책을秘書로 보관하도록 했다.

일곱째, 『救急簡易方』은 8卷 127門이다.

### 3. 『救急簡易方』의 구성 체계

『救急簡易方』의 특징 중 하나가 언해본이라는 것이기에 본 논고에서는 『救急簡易方』의 구성 체계를 살펴볼 때 언해된 구급의서인 『救急方』·『診解救急方』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救急簡易方』은 8卷 127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6門으로 이루어진 『救急方』과 76門으로 이루어진 『診解救急方』에 비해 1.5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127門을 다루어 다양한 구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나오는 門은 中風門으로, 中風門은 127門중에서도 그 내용이 가장 많다. 이는 잡병에 속하는 中風을 가장 급한 병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각 門마다 제일 처음에는 마땅히 쓸 수 있는 처방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증상을 세분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 거기에 따른 치료법이 나오는데, 단방이 많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을 기록해 두고 있다. 모든 내용들은 원문을 쓴 후 그 밑에 언해를 부쳐 두었다.

또한 목차를 보면 『救急方』·『診解救急方』과 달리 婦人과 小兒에 대한 門을 따로 두고 있다. 『救急方』에는 小兒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婦人과 관련된 내용은 3門<sup>16)</sup>이고, 『診解救急方』에서는 小兒와 관련된 門이 3門<sup>17)</sup>이고, 婦人과 관련된 門은 2門<sup>18)</sup>에 불과한데 비해, 『救急簡易方』은 婦人門이 12門<sup>19)</sup>, 小兒門이 20門<sup>20)</sup>이다. 이를 통해 『救急簡易方』이 구급에 관해서는 모든 연령층의 상황을 포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에서도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하

고 있는데, 장년보다 병들기 쉬운 어린아이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여자에 대해서, 다른 언해된 구급의서보다 많은 내용을 언급함으로 치료를 제 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救急簡易方』·『救急方』·『診解救急方』의 목차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1·표2·표3과 같다.

救急簡易方 1	救急簡易方2	救急簡易方3	救急簡易方4
中風	頭痛	口瘡	癩疔
中寒	卒咳嗽	唇口緊	陰縮
夏月熱死	心腹痛	面上生瘡	外痔
中氣	卒腰痛	腮腫	脫肛
五絶死	絞腸沙	失欠領車蹉候	泄瀉
卒死	霍亂	丁瘡	赤白痢
自縊死	咽喉腫	背腫	目珠子突出
溺死	纏喉風	走馬疔	眼卒生翳膜
木石壓死	噎塞	丹毒	物入眼
夜魘死	失音	便毒	耳痛
冬月凍死	舌腫	大小便不通	百虫入耳
白虎風	鼻衄	大便不通	物入耳
諸風癩	吐血	小便不通	
傷寒時疫	九竅出血	大小便血	
煩熱少睡		尿血	
		諸淋	
		夜多小便	

16) 下十四 孕婦逆生難產, 下十五 胎衣不下惡血湊心, 下十六 血量.

17)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권, pp.534-537, p.545.  
急慢驚風, 痘瘡黑陷, 縮泉神方.

18)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권, pp.531-534.  
難產, 胞衣不下.

19) 『救急簡易方』, 『韓國醫學大系』2권, pp.21-23.  
妊娠中風, 妊娠心痛, 妊娠大小便不通, 妊娠咳嗽, 兒在腹中哭, 子死腹中, 難產, 胞衣不下, 產後血不止, 產後 血不下, 乳腫, 乳汁不下.

20) 『救急簡易方』, 『韓國醫學大系』2권, pp.23-26.  
生下氣絶, 大小便閉, 遍身無皮, 臍腫, 口出白沫, 不飲乳, 吐乳, 口噤不開, 重舌, 口瘡, 牙疔, 驚癇, 夜啼, 痘瘡 陷入, 痘瘡黑陷, 痘瘡入眼, 痘瘡爛, 客忤, 腦發有核, 陰囊缺.

救急簡易方5	救急簡易方6	救急簡易方7	救急簡易方8
蟲毒	骨鯁	婦人門	小兒門
六畜肉毒	誤吞針類	妊娠中風	生下氣絕
一切魚毒	誤吞金銀	妊娠心腹痛	大小便閉
諸藥毒	誤吞竹木	妊娠 大小便不通	遍身無皮
砒礪毒	針刺折肉中	妊娠咳嗽	臍腫
一切草毒	竹木刺入肉中	兒在腹中哭	口出白沫
一切菜毒	虎傷	子死腹中	不飲乳
金瘡	風犬傷	難產	吐乳
打撲傷損	常犬傷	胞衣不下	口噤不開
湯火傷	毒蛇傷	產後血不止	重舌
杖瘡	諸惡虫傷	產後血不下	口瘡
凍瘡	蜈蚣咬	乳腫	牙疳
漆瘡	蜂蔑毒	乳汁不下	驚癇
手足裂	蜘蛛傷		夜啼
	蚯蚓咬		痘瘡陷入
	馬咬		痘瘡黑陷
	豬咬		痘瘡入眼
	貓咬		痘瘡爛
	鼠咬		客忤
	破傷風		腦發有核
	紫白癩風		陰囊
	治癩痕		

표1. 『救急簡易方』 목차

救急方上	救急方下
상一 中風	하一 箭鏃金刀入肉及骨不出
상二 中寒	하二 湯火傷
상三 中暑	하三 馬咬馬踏馬汗馬骨馬踢
상四 中氣	하四 打撲傷損
상五 中忤中惡鬼氣	하五 眯目
상六 鬼魘鬼打	하六 諸蟲入耳
상七 卒死	하七 菜毒
상八 卒心痛	하八 菌毒

상九 霍亂吐瀉	하九 砒霜毒
상十 尸厥	하十 魚肉毒
상十一 纏喉風喉閉	하十一 虎咬
상十二 骨鯁	하十二 獠犬毒
상十三 脫陽陰縮	하十三 諸蟲傷
상十四 吐血下血	하十四 孕婦逆生難產
상十五 大小便不通	하十五 胎衣不下惡血湊心
상十六 溺水	하十六 血暈
상十七 自縊	
상十八 失欠領車蹉候	
상十九 金瘡	

표2. 『救急方』 목차

診解救急方上		診解救急方下	
中風	諸骨鯁	諸獸傷	天泡瘡
破傷風	誤吞金鐵	諸蟲傷	陰蝕瘡
中寒	誤吞諸蟲	諸蟲入七竅	煙薰毒
陰陽易	飛絲入口眼	金瘡傷	難產
氣厥	眯目	打撲傷	胞衣不下
痰厥	失音	墮壓傷	急慢驚風
食厥	咳逆	筋斷骨折傷	痘瘡黑陷
尸厥	吐血	諸刺傷	諸穴論
卒死	衄血	湯火傷	俗方藥
中惡	九竅出血	飲食毒	瘡疾藥
鬼魘	眼睛突出	諸藥毒	縮泉神方
邪祟	失欠脫領	諸肉毒	常食相忌
癲狂	大便不通	諸魚毒	紅藥方文
上氣	小便不通	諸果毒	
頭痛	入井塚卒死	諸菜毒	
心痛	自縊死	蟲毒	
腹痛	溺水死	疫癘	
疔痛	凍死	大頭瘟	
霍亂	餓死	癰疽	
舌腫	斷穀不飢藥	大風瘡	

표3. 『診解救急方』 목차

#### 4.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들

조선왕조실록에서 ‘구급간이방’을 검색하면, 국역 3건·원문 4건이 검색되는데, 성종 20년(1489년) 5월 30일(정해) 2번째 기사에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 등이 『신찬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 9권<sup>21)</sup>을 바친 기사가 나오고, 성종 20년(1489년) 9월 21일(병자) 2번째 기사에 『救急簡易方』을 편찬한 인물들인 윤호(尹壕)와 임원준(任元濬)·허종(許琮)·박안성(朴安性)·권건(權健)·송흙(宋欽)·차득참(車得驂)·윤사하(尹師夏)에게 상을 하사한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들이 위 8인임을 알 수 있다.

허종이 쓴 『救急簡易方』 서문에서는, “영돈녕 부사 윤호·서하군 임원준·공조참판 박안성·한성부좌윤 권건 및 신허종에게 명하여, 관료들을 거느리고 고방을 찾아 모으게 했다.”<sup>22)</sup>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사람들 중 송흙·차득참·윤사하의 이름은 없다. 이것은 이 세 사람이 주 편찬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추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어쨌든 편찬인물 대부분은 儒醫<sup>23)</sup>로 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의원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송흙(宋欽)·차득참(車得驂) 두 사람이다.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들 중 본 논고에서는 우선 윤호·임원준·허종에 대해서 인물의 특징적인 점과 의학적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흡함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고자 각 인물들의 줄기를 첨부하였다. 편찬인물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 1) 윤호(尹壕, 1424년-1496년)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 중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윤호이다. 한글이름으로 검색하면 『救急簡易方』을 편찬한 윤호가 아닌 다른 내용이 많이 검색되므로 ‘尹壕’로 검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尹壕’를 검색하면 세조 1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무진) 3번째 기사부터 숙종 7년(1681 신유 / 청 강희(康熙) 20년) 3월 26일(기묘) 2번째 기사까지 국역 1230건·원문 1221건이 나온다.

‘尹壕’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허종·임원

준·박안성·권건·송흙·차득참·윤사하 순서로 검색건수가 많이 나온다.

윤호는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 중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救急簡易方』 편찬의 전체적인 총괄을 한 인물이 윤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성종의 장인이요, 후일 중종임금이 되신 진성대군(晉城大君) 이역(李懌)의 외할아버지로, 얼마든지 세도를 휘두를 수도 있었지만, 권력을 쓰지 않고 검소하고 깨끗한 선비로 살았으며<sup>24)</sup>,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의 일에 충성하여 1489년 5월 30일 『救急簡易方』을 지어 성종임금에게 바침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했다.

윤호의 자는 숙보(叔保)이고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소정공(昭靖公) 영천부원군과(鈴川府院君) 17세손이며, 고려시대의 명신이고 명장인 윤관(尹瓘)의 12대손이다. 그는 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삼산(三山)의 아들로, 원조(遠祖) 신달(莘達)·관(權)·언이(彦頤)가 모두 고려조(高麗朝)에 현달하여 대대로 훈벌(勳閥)이 되었다.

1472년 춘장문과(春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고, 1473년 병조참지를 지낼 때 윤호의 딸이 성종의 3번째 비 정현왕후(貞顯王后)가 되자 국구(國舅)로서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성종 7년(1476년)에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홍이로(洪利老)와 함께 표문(表文)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서 하정(賀正)하였고,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공조참판(工曹參判),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냈고, 1488년 대방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돈녕 부사(領敦寧府事)<sup>25)</sup>에 오르고 이듬해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를 겸했다. 1494년 우의정으로 耆老所에 들어가 几杖을 하사받았고, 1496년 4

21) 서문을 통해 8권임을 알 수 있다.

22)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診解·東洋學叢書 第九輯』, p.13.

...領敦寧府事 臣尹壕 西河君 臣任元濬 工曹參判 臣朴安性 漢城府左尹 臣權健 暨 臣琮 率其僚屬 搜括古方...

23) 김남일, [儒醫列傳 20] 許琮, 한의신문.

조선시대의 의학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儒醫 業醫 藥種商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儒醫는 유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된 경우이고, 業醫는 대대로 醫業을 家業으로 하는 中人層에 속하는 의사를 말하며, 藥種商은 단순히 약물을 사고파는 약물 판매업자를 말한다.

24) 윤호의 줄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였다. (性儉素, 無矯飾, 居第陋陋, 或言可改, 答曰: “此亦足矣。” 未嘗以勢焰加人, 遇親戚故舊, 常如布衣時)

25) 『朝鮮王朝實錄』, 성종 222권, 19년(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11월 15일(갑술) 5번째 기사.

일 줄였다. 시호(諡號)는 평정(平靖)이고, 저서에 파천집(坡川集)이 있다.

연산 2년(1496년)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4월 9일(병술) 4번째 기사

영돈녕 윤호의 줄기

호(壕)의 자는 숙보(叔保)요, 본관은 파평(坡平)인데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삼산(三山)의 아들이다. 원조(遠祖) 신달(莘達)·관(瓘)·언이(彦頤)가 모두 고려조(高麗朝)에 현달하여 대대로 훈벌(勳閥)이 되었다. 호(壕)는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직을 거쳐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이르렀으며, 성종은 그 딸을 책봉(策封)하여 왕비로 삼았으며, 영돈녕으로 승진되었다. 얼마 안 가서 우의정에 제수되었는데 논박을 입고서 체임(遞任)되었다가 뒤에 영돈녕이 되었다. 죽을 때의 나이는 73이다. 시호는 평정(平靖)이라 하였으니, 다소려서 과실 없음을 평(平)이라 하고, 즐겁게 잘 마친 것을 정(靖)이라 한다.

성품이 검소하여 꾸며됨이 없으며, 거처하는 집이 좁고 누추하여 어떤 이가 고쳐야 한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 역시 만족한다.' 하였다. 일찍이 세력으로써 남에게 가한 적이 없으며, 친척과 친구를 대하는 것도 항상 포의(布衣)의 시절과 같았다. 그러나 마음에 주장이 없어서 시비에 어두웠다. 우상(右相)이 되매, 대간이 바야흐로 그 합당하지 못함을 논하며, 우리가 번갈아서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하였으나, 의정(조선시대 백관(百官)의 최고관직인데 여기서는 우의정을 말함)을 하였다라는 이름을 얻고자 하여, 곧 상관(上官)이면서도 일의 종류를 이같이 알지 못하였다.<sup>26)</sup>

## 2) 임원준(任元濬, 1423-1500)

조선왕조실록에서 '任元濬'을 검색하면, 세종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4월 5일(갑신) 1번째 기사부터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8월 6일(정사) 1번째 기사까지 국역 480건·원문 482건이 나온다.

임원준은 본관이 풍천(豐川)이고, 자는 자심(子深)이며, 호는 사우당(四友堂), 시호는 호문(胡文)이다. 임원준은 문장이 뛰어나고 경사(經史)와 의학(醫學)에도 정통하여 각종 의서의 편찬<sup>27)</sup>과 교정<sup>28)</sup>, 번역<sup>29)</sup>, 주해<sup>30)</sup> 등에 관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임원준의 의학적 활동은 세조와 성종시대에 많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조 9년(1463년) 10월 23일에 원손이 풍질을 앓을 때, 호조 판서였던 임원준이 동지 중추원사(同知 中樞院事) 전순의(全循義)와 약을 논의한 내용<sup>31)</sup>이 나온다. 세조 9년(1463년) 11월 15일에 호조 참판(戶曹參判) 임원준(任元濬)이 의학(醫學)을 시강(侍講)한 내용이 나오며, 세조 9년(1463년) 12월 27일에 세조가 『의약론』을 지어 임원준에게 주해를 내게 하고, 인쇄·반포하게 한 내용이 나온다. 세조 10년(1464년) 10월 6일 기사에, 임금이 편찬을 때 전순의·임원준을 불러 약탕을 감독하여 올리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세조 12년(1466년) 10월 5일 기사 내용을 보면, 임금께서 병환이 난 후로부터 임원준(任元濬)이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김상진(金尙珍) 등과 함께 날마다 들어와 자고서 병환을 시중들었다는 내용<sup>32)</sup>이 나온다. 세조 12년(1466년) 윤3월 29일에는 최항·김국광·한계희 등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한 내용이 있다. 성종 8년(1477년) 5월 20일에는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좌참찬 임원준(任元濬)·행 호군 권찬(權攢)이 『의서유취(醫書類聚)』 30질을 인행(印行)하여 올렸다.<sup>33)</sup>는 내용이 있고, 성종 20년(1489년) 9월 21일 기사에 제조(提調) 윤호(尹壕), 허중(許琮)과 함께 『救急簡易方』을 올려, 마장(馬裝) 1부(部)와 노구(鑪口)하나, 도롱이[蓑衣] 하나를 하사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sup>34)</sup>

26) 『朝鮮王朝實錄』, 연산 14권, 2년(1496 병진 / 명 홍치(弘治) 9년) 4월 9일(병술) 4번째 기사.

○領敦寧尹壕卒。字叔保，坡平人。僉知中樞院事三山之子。遠祖莘達、瓘、彦頤俱顯隆麗朝，世爲勳閥，壕中文科，累歷至兵曹參判。成宗策封其女爲王妃，陞領敦寧，尋拜右議政，被駁見遞，後爲領敦寧。卒年七十三，諡曰平靖。治而無咎平，寬樂令終靖。性儉素，無矯飾，居第陋陋，或言可改，答曰：“此亦足矣。”未嘗以勢焰加人，遇親戚故舊，常如布衣時。但心無所主，昧於是非。爲右相，臺諫方論其不合，勢將遞改，欲得曾經議政之名，徑自上官，其不識事類此。

27) 『창진집(瘡疹集)』, 『동국통감(東國通鑑)』, 『의서유취(醫書類聚)』,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

28) 『병장설(兵將說)』, 『북정록(北征錄)』.

29) 『명황계감』.

30) 세조의 『의약론』, 『소문충공집』의 난해한 곳을 주해.

31) 『朝鮮王朝實錄』,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0월 23일(무신) 1번째 기사.

○戊申/元孫得風疾，命召戶曹參判任元濬、同知中樞院事全循義等議藥。

32) 『朝鮮王朝實錄』, 세조 40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10월 5일(계묘) 3번째 기사.

33) 『朝鮮王朝實錄』, 성종 80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5월 20일(병술) 2번째 기사.

34) 『朝鮮王朝實錄』, 성종 232권, 20년(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9월 21일(병자) 2번째 기사.

○內醫院進新撰《救急簡易方》。賜提調尹壕、任元濬、許琮各馬裝

또한 그의 저서로 창진집(瘡疹集)이 있는데, 조선 초 유일한 창진(瘡疹)에 관한 전문 의서로 당시 호발 하는 질병인 창진의 정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한 것이다.<sup>35)</sup> 이 책은 현재 망실(亡失)되어 전하지 않고, 일본 『율수당 가장 의서목(律修堂架藏醫書目)』 중에, “『창진집(瘡疹集)』은 임원준이 교찬(敎撰)한 조선 본(朝鮮本)을 발취한 것이다. (瘡疹集 抄朝鮮本 任元濬 敎撰.)”라고 기록되어 있어 임원준의 저서임이 알려지게 되었다.<sup>36)</sup> 그리고, 『救急簡易方』보다 앞서 간행된 세조대 『救急方』도 임원준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7)</sup>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1월 23일(계유) 3번째 기사  
서하군 임원준의 졸기

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이 졸(卒)하였다. 자(字)는 자심(子深)이고 본관(本貫)은 풍천(豊川)인데, 나이 10세에 능히 글을 지으므로 그 당시에 신동(神童)이라고 이름이 났었다. 정통(正統) 을축 년 세종께서 효령 대군(孝寧 大君)의 별서(別墅)로 이어(移御)하셨을 때에 특별히 그를 불러 보시고 말하기를,

“옛날 사람이 7보를 걷는 동안에 시를 지은 사람<sup>38)</sup>도 있고 동발(銅鉢)을 친 소리가 끝나는 동안에 시를 지은 일<sup>39)</sup>도 있는데, 네가 능히 옛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시고는, 세자를 시켜 시제(詩題)를 춘운(春雲)이라고 내고 이어 운자(韻字)를 불러주었는데, 임원준은 곧 쓰기를,

화창한 삼춘 날씨에

멀고 먼 만리 구름이로다

바람은 천길이나 헤치고

햇빛에 오화가 문채나네

상서로운 빛은 옥전에 어리었고

서기는 금문을 웅위 하네

용을 따르게 될 날을 기다려

장맛비가 되어 성군을 보좌하리라

고 하였는데, 임금께서 한창 동안 칭찬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동반직(東班職)을 임명하게 하였다. 경태(景泰) 병자년 과거에 장원하여 집현전 부교리(副校理)에 임명되고, 정축년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직 예문관(直 藝文館)으로 전임(轉任)되고, 사헌부 장령 세자 필선(世子弼善)·보덕(輔德)·판봉 상시사(判奉 常寺事)를 역임하여 이조 참의에 승진되고, 호조·예조·병조·형조의 참판을 지냈다. 병술 년에 발영(拔英)·등준(登俊) 두 시험에 합격하여 송정대부(崇政大夫) 예조 판서, 의정부 좌의정부 좌·우 참찬(左右參贊)에 승진되었었다. 신묘 년에 좌리 공신(佐理功臣)으로 책훈(策勳)되어 서하군(西河君)에 봉작(封爵)되었는데, 졸(卒)할 때의 나이 78세였다. 시호

(諡號)는 호문공(胡文公)인데 ‘나이가 차도록 오래 사는 것 [彌年壽老]’을 호(胡)라 이르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문기를 좋아하는 것[勤學 好問]’을 문(文)이라 이른다. 여러 가지 서적을 널리 알아 문장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고, 풍수(風水)·의약(醫藥)·복서(卜筮)의 방술(方術)까지 알았었다. 그러나 성질이 음침하고 교활하며 탐심 많고 간사했는데, 그 아들 임사홍(任士洪)과 손자 임승재(任崇載)가 대대로 그 간사한 짓을 계승하여 마침내 나라 일을 그르치게 되었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임원준(任元濬)을 대임(大任)이라 하고 임사홍(任士洪)을 소임(小任)이라 하였다.<sup>40)</sup>

### 3) 허중(許琮, 1434-1494)

조선왕조실록에서 ‘許琮’을 검색하면, 세조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1월 15일(무술) 2번째 기사부터 영조 23년(1747 정묘 / 청 건륭(乾隆) 12년) 8월 4일(임술) 1번째 기사까지 국역 848건·원문 837건이 검색된다.

허중의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종경(宗卿)·종지(宗

一部、鑪口一、蓑衣一、 朴安性·權健、醫員堂上宋欽·車得驂各馬裝一部、蓑衣一、郎聽尹師夏以下鹿皮一張。

35) 김남일, [儒醫列傳 31] 任元濬편, 한의신문 2006.09.18.

36)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 정보 웹서비스, 瘡疹集, <http://jjsik.kiom.re.kr/DB>.

37) 경순덕, 「『救急方』의 의사학적 연구」, p.57.

38) 『朝鮮王朝實錄』,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1월 23일(계유) 3번째 기사.

7보를 걷는 동안에 시를 지은 사람 : 위 문제(魏文帝) 조비(曹丕)가 그의 아우 조식(曹植)에게 칠보(七步) 안에 시(詩)를 지어야지 만약 짓지 못하면 처형하겠다 하므로 조식이 즉석에서 시를 지은 고사.

39) 『朝鮮王朝實錄』,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1월 23일(계유) 3번째 기사.

동발(銅鉢)을 친 소리가 끝나는 동안에 시를 지은 일 : 남제(南齊)의 소자량(蕭子良)이 밤에 문사(文士)를 모아 놓고 동발(銅鉢)을 치면서 운자(韻字)를 내니, 동발 소리가 사라지자 시를 지은 고사.

40) 『朝鮮王朝實錄』, 연산 39권, 6년(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11월 23일(계유) 3번째 기사.

○西河君任元濬卒。字子深，豊川人。年十歲，能綴文，時號神童。正統乙丑，世宗移御孝寧大君別墅，特召賜見曰：“古人有七步詩成，有擊鉢成詩，汝能及古人乎？”命世子出題曰：“春雲。”仍呼韻，即書曰：“駘蕩三春候，悠揚萬里雲。凌風千丈直，映日五花文。祥光凝玉殿，瑞氣擁金門。待得從龍日，爲霖佐聖君。”上稱賞久之。未幾，命除東班職，魁景泰丙子科，拜集賢殿副校理。丁丑中重試，轉直藝文館，歷司憲府掌令，世子弼善·輔德、判奉常寺事，陞吏曹參議，轉戶、禮、兵、刑四曹參判。丙戌中拔英、登俊兩試，俄陞崇政禮曹判書，議政府左、右參贊。辛卯策勳佐理，封西河君。卒年七十八，諡胡文公，彌年壽考胡，勤學好問文。博通群書，以文章名世。兼貫風水、醫卜之術。然性陰狡貪邪，其子士洪、孫崇載世濟其奸，卒至誤國，時稱大任、小任。



之), 호는 상우당(尙友堂), 시호는 충정(忠貞)이고, 고려(高麗) 시중(侍中) 허공(許珙)의 후손이며, 군수 손(孫)의 아들이며, 좌의정 침(琛)의 형이다. 양천 허씨 판도좌랑공파 후손으로 허준(許浚)과 같은 집안이고,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헌하여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되고 양천군(陽川君)에 봉하여졌다.

허중(許琮)은 평생 산업(產業)을 다스리지 않아 거처하는 곳이 좁고 누추한데도 태연하게 지냈고, 성종 조의 청백리로 녹선 되었다.

허중은 문무에 모두 뛰어났고, 국방과 문예에 큰 공을 남겼고,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를 겸대하면서 종종 때의 명의인 김순몽(金順蒙)·하종해(河宗海) 등을 교회(敎誨)하였다. 그의 의학적 업적으로는 서거정·노사신 등과 함께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언해하였으며, 윤호(尹壕) 등과 『신찬 구급간이방(新撰 救急簡易方)』을 편찬하였고, 편서에는 『의방유취(醫方類聚)』를 요약한 『의문정요(醫門精要)』가 있고, (허중이 미완성한 채 사망 후 권건(權健)·김심(金諶)이 1504년 완성하여 의문정요 50권을 내의원에서 교정하여 간행함) 『소문 충공집(蘇文忠公集)』을 주해(註解)하였다.

안상우는 그의 논문에서 '성종대의 의서 출판은 허중에 의해 주도된다.'<sup>41)</sup>고 말하고 있다.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4일(계유) 2번째 기사

우의정 허중의 졸기

우의정(右議政)허중(許琮)이 졸(卒)하니, 철조(輟朝)<sup>42)</sup>·사부(賜賻)·조제(弔祭)·예장(禮葬)<sup>43)</sup>을 예(例)와 같이 하였다.

허중의 자(字)는 종경(宗卿)이니, 고려(高麗) 시중(侍中) 허공(許珙)의 후손이다. 그 심지와 기질이 침중(沈重)하고 원대하였으니, 젊어서 벗과 더불어 같이 지내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 의복과 신을 다 가지고 갔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도둑을> 모두 원망했지만, 허중은 기꺼운 양으로 조금도 이에 개의(介意)하지 않았다.

경태(景泰) 병자년(1456년 세조2)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고, 천순(天順) 정축년(1457년 세조3)에 문과(文科)에 제 3위로 합격하여, 처음에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에 제수되어 세자 우정자(世子 右正字)를 겸임하였다.

기묘년에 통례문 봉례랑(通禮門 奉禮郎)과 지제교(知製敎)에 제수되었다. 세조(世祖)가 일찍이 천문(天文)을 익히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마침 일식(日食)하는 것을 보고 허중이 그 식분(食分)을 추산(推算)하여 올리고, 아울러 소(疏)를 올려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언로(言路)를 열어 주며, 유전(遊畋)을

절제하고 경연(經筵)에 <자주> 임어할 것 등의 일을 개진(開陳)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경직(鯁直)하였다. <세조가> 명하여 불러 들어가매 힐책하기를, '십순(十旬)을 돌아가지 않았거나 면(麪)으로 희생[牲]을 대신하는 따위의 내 과실이 없거늘, 네가 하(夏)의 태강(太康)과 양(梁)의 무제(武帝)를 나에게 비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거짓 위엄과 노기를 가하면서 상투를 잡고 끌어내리어 곤장을 치도록 명하는데도 허중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고, 차착(差錯) 없이 응대(應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 장사(壯士)로다.' 하고, 드디어 잔을 올리라 명하니, 그 진퇴(進退)하는 동작이 옹용(雍容)하므로, 갑자기 겸선전관(兼宣傳官)을 제수하였으며, 세조가 여러 명신(名臣)에게 나누어 주어 불경을 읽게 하면서 말하기를, '허중은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니 주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다.

경진년(1460년 세조6)에 평안도 도절제사 도사(平安道 都節制使 都事)에 제수되고, 신사년(1461년 세조7)에 형조도관 좌랑(刑曹都官 佐郎)에 제수되었으며, 임오년(1462년 세조8)에는 함길도 관찰사 도사(咸吉道 觀察使 都事)에 제수되었다가 갈리어 정언(正言)이 되었다.

계미년(1463년 세조9)에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가 성균직강(成均 直講)으로 옮겨 예문응교(藝文 應敎)를 겸임하였고, 갑신년(1464년 세조10년)에 사예(司藝)로 승진되었다. 이때 한명회(韓明澮)가 평안도 순찰사(平安道 巡察使)가 되어 허중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임금에게 품지(稟旨)를 받아야 했으므로 반드시 허중을 보내곤 했다. 이해 겨울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 同副承旨)에 발탁 제수되었다.

성화(成化) 을유년(1465년 세조11) 가선 대부(嘉善大夫)에 승진 함길도 절도사(咸吉道 節度使)에 제수되었고, 병술년(1466년 세조12) 봄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강효문(康孝文)으로 대체하였는데, 정해년(1467년 세조13)에 이시애(李施愛)가 강효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sup>44)</sup> 기복(起

41)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학적 연구」, p.25.

42) 『朝鮮王朝實錄』,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4일(계유) 2번째 기사.

국상을 당하거나 대신이 죽었을 때 혹은 재앙이 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임시로 조회를 정지하던 일

43) 『朝鮮王朝實錄』,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4일(계유) 2번째 기사.

임금이나 종친 2품 이상의 문무백관과 그 부인들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그 격에 맞게 예를 갖추어 지내던 장사(葬事) 이때 일체의 장례비용과 물자와 군정을 지급하였음.

44) 이시애(李施愛)가 강효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 :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조 13년에 영안도(永安道·함경도) 길주(吉州)의 토호(土豪) 이시애(李施愛)가 그 아우 이시합(李施合)과 더불어 지방적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군민(軍民)을 선동하고는 마침 도내를 순찰 중이던 절도사 강효문(康孝文)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이시애·이시합 형제는 허중(許琮)의 휘하 군관(軍官) 허유례(許惟禮)의 계교로 자신들의 우위장(右衛將)인 이운로(李雲露) 등에게 사로잡히는 바 되어 형제가 함께 처형되었

復)<sup>45)</sup> 하여 다시 절도사가 되었다. 반적(叛賊)을 평정하고 나서 허종이 종용(從容)히 진정시켜 북방(北方)이 안정을 되찾으며, 정충 출기 포의 적개공신(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승정대부(崇政大夫)에 가자(加資)하여 양천군(陽川君)에 봉(封)하였다.

무자년(1468년 세종14)에 모친(母親)의 병으로 소환(召還)되고, 기축년(1469년 예종 원년)에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불러 돌아와서 바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장영기(張永奇)란 도적이 전라도(全羅道)에서 일어나니, 허종을 절도사로 삼아 적(賊)을 사로잡자, 소환된 지 얼마 안 되어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었다.

신묘년(1471년 성종2)에 순성 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의 칭호를 내렸고, 정유년(1477년 성종8)에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되었다. 이 해에 건주 야인(建州野人)이 요동(遼東)을 침범해 들어가니, 허종에게 명하여 평안도를 순찰(巡察)케 하였으며, 겨울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제수되어 바로 좌참찬(左參贊)에 승진되었다.

무술년(1478년 성종9)에 임금이 장차 왕비를 폐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유독 허종이 한(漢)나라 광무(光武)와 송(宋)나라 인종(仁宗)의 과실을 들어 그 불가항을 극력 진달하니, 임금의 마음이 풀렸다. 이 해 가을에 조모 상(祖母喪)을 당하였는데, 경자년(1480년 성종11)에 <다시> 기복(起復)되어 평안도 순찰사(平安道 巡察使)가 되었고, 신축년(1481년 성종12)에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제수되었다. 임인년(1482년 성종13)에 의정부 우참찬(議政府 右贊成)에 승진되고 계묘년(1483년 성종14)에 세자이사(世子 貳師)를 겸하였다.

을사년(1485년 성종16)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고, 정미년(1487년 성종18) 가을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제수되었다. 무신년(1488년 성종19) <명(明)나라> 한림 시강(翰林侍講) 동월(董越)과 급사중(給事中) 왕창(王敞)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왔는데, 허종이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응대(應對)와 주선(周旋)이 절도에 맞으므로, 두 사신이 존경하고 감복(感服)하였으며, 작별에 임하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기를, ‘공(公)이 일찍 북경(京)에 조회하러 와서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해외(海外)에도 이런 인물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는 몰라도 인간(人間)에는 둘도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가을에 병조 판서로 옮겨 곧 승록대부(崇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기유년(1489년 성종20) 영안도(永安道)에 와언(訛言)이 일어나 인심(人心)이 불안하자, 허종을 명하여 관찰사로 삼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승진시켰다. 신해년(1491년 성종22)임기가 만료되어 마땅히 체임(遞任)되어야 할 터인데, 장차 니마거(尼麻車)를 정벌하려 하므로 그대로 유임하고 있다가, 역마(驛馬)를 타고 들어와 뵈기를 명하여 임금 면전에

서 그 방략(方略)을 진달하매 드디어 북정 도원수(北征 都元帥)로 삼았다. 허종이 명을 받고 돌아가 각 부서(部署)에 제장(諸將)을 배치하여 오랑캐의 부락에 다다르니,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하므로 드디어 그들의 집과 여막을 모조리 불사르고 돌아오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정경조(鄭敬祖)를 보내어 선운(宣醜)을 가지고 가서 영접해 위로하게 하였다.

임자년(1492년 성종23)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에 진계(進階)되었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병이 위독함을 듣고 임금이 중관(中官) 안중경(安仲敬)을 보내어 뒷일을 물으니, 허종이 이미 위중하여 눈을 뜨고 목구멍소리로 말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종말을 삼가기를 처음같이 하소서.’ 할 뿐이었다. 향년이 61세였다. 시호(諡號)를 충정(忠貞)이라 하였으니, 임금을 섬기되 신절(臣節)을 다함을 충(忠)이라 하고, 끝은 도(道)를 동요하지 않음을 정(貞)이라 한다.

사신은 논한다. 허종(許琮)은 성품이 관후(寬厚)·간중(簡重)하고 자태와 의표가 빼어나고 위연(偉然)하였으며, 수염 또한 아름다워 바라보는 자 누구나 그가 대인군자(大人君子)임을 알았다. 아무리 창졸간이라 해도 조급한 말이나 장황한 안색을 짓지 않았으며, 일에 임하여는 임금의 희로(喜怒)에 의해 끌려가지 않고 확고한 소신대로 하였다. 서적(書籍)을 널리 보았고 잡예(雜藝)에도 통하였으며, 더욱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평생 산업(產業)을 다스리지 않아 거처하는 곳이 좁고 누추한데도 태연하게 지냈다. 문무(文武)의 재능을 겸비하여 장상(將相)으로서 물망이 중하여 그 한 몸이 국가의 경중에 연계되었는데, 북정(北征)의 거조를 당시의 논의가 애석해 하였다<sup>46)</sup>

음.

45) 기복(起復) : 나라의 일이 있을 때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3년 상이 끝나기 전에 다시 벼슬에 임명하던 제도.

46) 『朝鮮王朝實錄』,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2월 14일(계유) 2번째 기사.

○右議政許琮卒。輟朝賜膊弔祭禮葬如例。琮字宗卿，高麗侍中珉之後，志氣沈遠，少與友同棧，偷兒盡取衣履以去，諸人咸懷恨，琮怡然不介意。景泰丙子中生員試，天順丁丑中文科第三名，初授義盈庫直長兼世子右正字，己卯授通禮門奉禮郎知製教。世祖嘗命習天文，時適見日食，琮推算食分以進，并疏斥異端，開言路，節遊畋，御經筵等事，言其鯁峭，命召入，詰之曰：“十旬不返，以斲代牲，予無是失，而汝以夏康，梁武比予，何耶？”佯加威怒，命摔下杖之。琮略無懼色，應對不差。上曰：“真壯士也。”遂進爵，進退雍容。俄授兼宣傳官，上分授諸名臣，使讀佛經曰：“琮不喜佛，其勿授之。”庚辰拜平安道都節制使都事，辛巳拜刑曹都官佐郎，壬午拜成吉道觀察使都事，遞爲正言。癸未拜持平，遷成均直講兼藝文應教，甲申陞司藝。時韓明滄爲平安道巡察使，以琮爲從事，每有事當稟旨，必遣琮。是年冬擢授承政院同副承旨，成化乙酉拜嘉善成吉道節度使，丙戌春丁父憂，康孝文代之，丁亥李施愛殺孝文以叛，起復爲節度使，及賊平，琮從容鎮定，北方賴以安。賜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之號，階加崇政，封陽川君。戊子以母病召還，己丑爲平安道觀察使，數月徵還，俄拜大司憲。有賊張永奇起全羅道，以琮爲節度使，賊就擒召還，未幾拜兵曹判書，辛卯賜純誠佐理功臣之號，丁酉拜禮曹判書。是年建州野人寇遼東，命琮巡察平安道，冬拜議政府右參贊，尋陞左參贊，戊戌上將廢

이상으로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 중 윤호·임원준·허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 이 세 사람만 보더라도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들이 유의이면서도 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救急簡易方』을 편찬하는 일이 국가의 중대사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 III. 결론

이상으로 성종 때 만들어진 『救急簡易方』에 대해 소략하게 살펴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1. 『救急簡易方』은 성종의 명을 받은 내의원 제조 윤호·서하군 임원준·공조참판 박안성·한성부좌윤 권건·승록대부 행병조판서 양친군 허중 등이 1489년 성종 20년 5월에 왕에게 진상하자, 각 도의 관찰사에게 다량으로 간행토록 하여 조선 초 일반 서민들까지 집집마다 갖추게 하고, 창졸간에 생긴 병이라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통의 손쉬운 약재로 치료하며, 부녀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책을 펴서 처방을 찾아보면 치료 방법이 한 눈에 들어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해본 구급의서이다.

2. 서문을 통해 편찬의도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救急簡易方』은 『醫方類聚』와 이전의 구급의서인 『鄉藥濟生方』과 『救急方』을 보완하여 만들었는데, 넓은 곳에서 뽑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취하였고, 고방에서 찾아 모았으나 택함에 정미롭게 하고, 간략해도 생략되거나 뒤집히지 않게 하고, 병은 중요한 것을 취하였으되 급한 것을 우선으로 삼고, 약은 적은 것을 모으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였고, 백성의 생활과 병을 치료하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방언으로 기록하여 백성들이 쉽게 깨우치게 했고, 향약과 단방 등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었다.

3. 『救急簡易方』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니, 8卷 127門 중 中風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 잡병에 속하는 中風을 가장 급한 병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6門으로 이루어진 『救急方』과 76門으로 이루어진 『診解救急方』보다 1.5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127門

으로 이루어진 『救急簡易方』이 구급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고 많이 다루어 다양한 구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門마다 제일 처음에는 마땅히 쓸 수 있는 처방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증상을 세분해서 자세히 설명한 후 거기에 따른 치료법이 나오는데, 단방이 많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을 기록해 두고 있었고, 모든 내용들은 원문을 쓴 후 그 밑에 언해를 부쳐 두고 있었다.

또한, 『救急方』·『診解救急方』과 달리 부인과 소아에 대한 門을 목차에서 따로 두고 있었는데, 이는 『救急簡易方』이 구급에 관해서는 모든 연령층의 상황을 포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장년보다 병들기 쉬운 어린아이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여자에 대해서도, 다른 언해된 구급의서보다 많은 내용을 언급하여 치료를 제 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음으로, 구급의서로서의 본래 목적을 잘 담고 있는 의서임을 알 수 있었다.

4.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 중 윤호·임원준·허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세 사람만 보더라도 『救急簡易方』의 편찬인물들이 유의이면서도 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救急簡易方』을 편찬하는 일이 국가 중대사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종합의서의 일부분으로 들어있는 구급의학과 전문구급의서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이루어진 후에는 구급의학적 맥락과 의사학적 맥락에서 『救急簡易方』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妃, 人莫敢言, 獨琮引漢光武、宋仁宗之失, 力陳不可, 上意解。秋丁祖母憂, 庚子起復爲平安道巡察使, 辛丑拜戶曹判書, 壬寅陞議政府右贊成, 癸卯兼世子貳師, 乙巳丁母憂, 丁未秋拜吏曹判書, 戊申翰林侍講董越、給事中(王敞) [王敞] 奉詔來, 琮爲遠接使, 應對周旋中度, 兩使敬服, 臨別至出涕曰: “望公早時朝京, 使中朝知海外有此人也。所不知者天上, 人間則無雙。” 秋移兵曹判書, 尋加崇祿, 己酉永安道訛言起, 人心不定, 命琮爲觀察使, 進階輔國崇祿, 辛亥秩滿當遞, 將征尼麻車, 故仍之。命乘遽入覲, 而陳方略, 遂以爲北征都元帥。琮受命還部署, 諸將抵虜部落, 虜皆畏遁, 遂焚蕩室廬而還。上遣都承旨鄭敬祖齎宣醴迎勞。壬子進階大匡輔國崇祿議政府右議政, 至是病篤, 上遣中官安仲敬問後事, 琮已危, 開日喉語曰: “願殿下慎終如始而已。” 享年六十一, 諡忠貞, 事君盡節, 忠; 直道不撓, 貞。【史臣曰: “琮性寬厚簡重, 姿表秀偉, 鬚髯亦美, 人望之知其爲大人君子, 雖倉卒未嘗疾言遽色, 臨事確然, 不以人主喜怒爲遷就, 博覽書籍, 旁通雜藝, 尤深於性理之學, 平生不治產業, 所居湫陋, 處之泰然。才兼文武, 望重將相, 以身繫國家輕重, 而北征之舉, 時議惜之。”】

#### IV. 참고문헌

1. 「救急簡易方」, 『韓國醫學大系』 2권, 여강 출판사, 1994, 서울
2.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 1권, 여강 출판사, 1994, 서울.
3.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診解·東洋學叢書 第九輯』, 단국대학교 출판사, 1982, 서울.
4. 맹웅재 외 15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서울.
5. 김남일, [儒醫列傳 20] 許琮편, 한의신문 2006.
6. 김남일, [儒醫列傳 31] 任元濬편, 한의신문 2006.
7. 김홍균, 조선 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서울.
8.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서울.
9. 정순덕, 『救急方』의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서울.
10. 정순덕, 허준의 『診解救急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서울.
11. 신영일, 『鄉藥救急方』에 대한 研究(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서울.
12. 『朝鮮王朝實錄』
13.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 정보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DB>.